

인민들이 실지 덕을 볼수 있게

2015년 1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새로 건설한 류경버섯공장을 찾으시였다.

일군들과 인사를 나누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산뜻하게 꾸려진 공장의 모습을 한동안 바라보시면서 버섯공장을 정말 멋있게 꾸렸다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이윽고 조종실과 기술준비실을 비롯한 공장의 여러곳을 기쁨속에 돌아보시며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앞으로 우리가 버섯 재배에서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생산공정의 자동화, 무인화를 실현하는것 이라고, 과학자, 기술자들은 버섯재배에서 세계를 압도하겠다는 높은 목표를 세우고 첨단을 돌파해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버섯을 많이 생산하여 우리 나라를 버섯의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고, 평양시에서 버섯공장을 건설한것만큼 이제부터는 인민들이 실지 그 덕을 보게 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수도시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와 함께 버섯도 떨구지 않고 정상적으로 안겨주도록 하시기 위하여 평양시에 버섯 공장을 전국의 본보기가 될수 있게 꾸리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새로 건설된 공장에 나오시여 버섯을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이 실지 그 덕을 보게 하여야 한다고 절절히 당부하시며 그 방도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